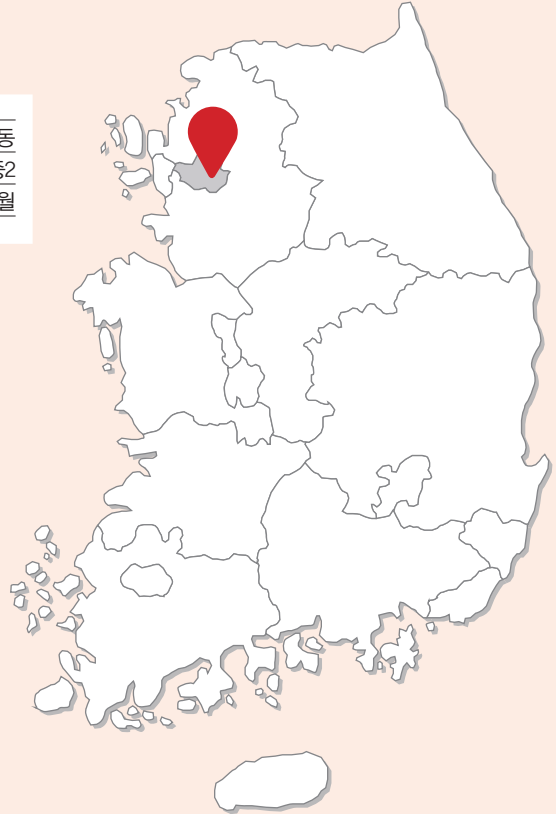


“〈내일교육〉을 유튜브로 만나고 싶어요”

거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녀	고1, 중2
구독 기간	12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첫째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설명회를 갔다가 〈내일교육〉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생활이나 대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꾸준히 읽어보려고 신청했어요.

대입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나요?

요즘은 지면보다는 설명회나 유튜브를 통해 대입 정보를 많이 얻어요. 〈내일교육〉에도 알토란 같은 기사가 많지만 영상에 익숙해서인지 대입 설명회나 유튜브를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내일교육〉 기사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준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자에게
물는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skkda@neel.com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떤 고민이 있나요?

내신 성적뿐 아니라 학생부도 신경 써야 해서 설명회를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상담이 도움이 될지, 학생부종합전형을 아이 혼자 준비하는 게 가능한지 걱정이 많거든요. 자연 계열 진학을 생각해 고2 때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을 선택했는데 요즘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수능에서 <물리학 I> <화학 I>은 절대 선택하지 말고 <사회·문화>는 꼭 선택하라는 얘기도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고이 끝나는 시점에 학생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높아졌지만 고2 1학기까지는 수시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학년별로 대략적인 대입 준비 계획이나 점검할 사항을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

Reporter's A/S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를 비롯해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등에서 다양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를 다룬 기사를 추천하니 눈여겨봐주세요.



본지 1158호
'미리 보는 2026 학생부 전형 수능·선택 과목 영향력 더 커졌다'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2024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39_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이민석

시를 영리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세상 만들 거예요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를 열심히 읽어요. 아이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 중이라 다른 학생의 수시 준비 과정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나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WEEKLY THEME_ 수시 지원 경향으로 본 정시 무전공 지원 전략

“아이가 자연 계열 진학을 고려하는데 진로 고민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복수 전공이 수월해 학교보다 대학 위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무전공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